

광주시 'G-유니콘 육성기업' 에스오에스랩, 코스닥 상장 돌입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통과... 'G-유니콘 육성사업' 성과 북미지역 실증 등 지원효과 '뚜렷'... 5월 육성기업 선정

광주시의 'G-유니콘 육성기업' 가운데 한곳인 ㈜에스오에스랩이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통과해 상장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광주시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창업기업을 선발, 육성하는 'G-유니콘 기업' 지원사업이 지역 창업기업들의 글로벌 성장의 초석이 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해 'G-유니콘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에스오에스랩(대표 정지성)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광주시의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 노력과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G-유니콘 육성사업'의 의미 있는 성과로 풀이된다.

'G-유니콘 육성사업'은 광주시가 지역 내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선발해 투자유치·판로지원 등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창업기업 성장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G-유니콘 기업 선정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에스오에스랩은 G-유니콘 육성프로그램인 글로벌(북미) 실증(PoC) 프로그램을 통한 미국 시애틀 수요기업(메트롤라)과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또 투자유치 프로그램과 대기업 개방형 혁신 전략(오픈이노베이션) 등 'G-유니콘'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규모 확대에 힘써왔다.

이와 함께 지역 투자기관인 광주연합기술주주와 전남대기술주주가 운용하는 창업펀드의 투자를 받았다. 상장 전 지분투자(Pre-IPO) 단계부터 순조롭게 상장 준비를 마쳤고, 지난해 10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해 이날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확정됐다.

에스오에스랩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라이더(LiDAR) 기술 특허를 보유한 지역기업이다. 자율주행차용 라이더(LiDAR) 기업 최초로 코스닥 상장이라는 목표에 도전, 지난 2020년 9월 박셀바이오 이후 3년6개월만에 지역기업의 코스닥 예비심사 승인 확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게 됐다.

※ 라이더(LiDAR) : 광원을 이용해 거리와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

한편 광주시는 올해도 누적 투자유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G-유니콘 육성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5월 선정, 최대 3억원 이내의 사업화자금과 기업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해 'G-유니콘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에스오에스랩(대표 정지성)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해 'G-유니콘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에스오에스랩(대표 정지성)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해 'G-유니콘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에스오에스랩(대표 정지성)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G-유니콘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과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현대차그룹, 제주도 EV 렌터카 대상 PnC 기술 편의성 체험 이벤트 진행



현대차그룹은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제주도에 위치한 롯데렌터카에서 운영하는 현대차·기아·제네시스 전기차에 '플러그 앤 차지 테크놀로지(Plug & Charge Technology)'를 적용해 EV 충전 편의성을 높인다. /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차그룹이 향상된 전기차 충전 편의성을 알리기 위해 EV 렌터카에 PnC 기술을 적용한다.

현대차그룹은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제주도에 위치한 롯데렌터카에서 운영하는 현대차·기아·제네시스 전기차에 '플러그 앤 차지 테크놀로지(Plug & Charge Technology)'를 적용해 EV 충전 편의성을 높인다.

아울러 같은 기간 해당 차량을 단기 렌트하는 고객에게 E-pit 초고속 충전 비용을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플러그 앤 차지 테크놀로지(Plug & Charge Technology, 이하 PnC)'

는 충전 케이블을 꽂기만 하면 회원 인증부터 충전과 결제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도 소재 롯데렌터카에서 운영하는 PnC 적용 전기차는 ▲현대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 ▲기아 EV6, EV9, 니로 EV ▲제네시스 GV60, G80 전동화 모델 9종이다.

대상 차량을 단기 렌트한 고객이 제주도 E-pit 충전소 내 260킬로와트(kW)급 충전기에서 초고속 충전을 할 경우 차량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충전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고객은 충전기 화면의 'PnC 충전

'버튼'을 선택해 별도 인증 및 결제 과정 없이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다.

E-pit은 국내에서 가장 빠른 충전 속도를 제공하는 현대차그룹의 초고속 충전 서비스다. 18분 만에 현대차 더 뉴 아이오닉 5의 배터리를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단, 충전 속도는 외기 온도 및 배터리 온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현대차그룹은 제주도에 ▲새빌 E-pit(제주시 애월읍) ▲하귀 하나로마트 E-pit(제주시 애월읍) ▲동쪽송당 E-pit(제주시 구좌읍) 3개소에서 E-pit 충전기 16기를 운영 중이고, 현재 국내에서 운영하는 286기의 E-pit 충전기를 오는 2025년 500기까지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 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 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